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9월 21일 ~ 9월 27일)

월	권순용, 최라미 율리타, 임선혜 아녜스, 정희진, 정유미, 이경술 베로니카, 박옥자 수산나, 조영혜 율리아, 이미경 카타리나, 구희송 가브리엘, 이순정 레지나, 김미영 안나, 강홍희 데레사, 최재복 미카엘, 김미영 켄마
화	박홍섭 요셉, 성윤서 데레사, 이성렬 베드로, 한애자 베레나, 신지윤, 이순오 스텔라, 양종일 다니엘, 홍혜숙 켄마, 박상열, 노연정, 안해화 미카엘라, 권영미 안나, 김현경, 여순애 데레사, 안종훈
수	조영풍 타대오, 김봉준, 김미영, 임유순 루치아, 김희숙, 임정만, 장복례, 손우경 클라라, 선아 소피아, 김연화, 조현정, 서채영 비비안나, 박준화 데레사, 하승호 스테파노, 정삼남 미카엘라,
목	여시원 루실라, 안정임, 김용주 아우구스티노, 정순규 안드레아, 김삼자 켄마, 박용덕, 김연승 마르타, 김영중, 이건남, 명은희 막달레나, 최정숙 엘리사벳, 박형미 헬레나, 남기선 브로다시오, 안춘호 안드레아, 전경희 안젤라,
금	주영숙 벨라데타, 이형수 요셉, 김성은 스콜라스티카, 윤동현, 유수중, 공 요셉, 김성희 엘리사, 손명희 로사, 임바울, 조영수 세실리아, 김순희 아가다, 김효우 그라체, 고명암 요셉, 김백순 안나, 하정우 사도요한
토	전종희 스테파노, 이구남 루치아, 김미은 크레센시아, 오경민 데레사, 최철규, 김영란 글라라, 서정표 대건안드레아, 정혜자 아녜스, 유일연, 강병구 베네딕도, 나영란, 김유철 바오로, 박성정 요한, 박영록 대건안드레아, 김태경 요셉
주일	유상 안나, 민미경 엘리사벳, 배길자 마리아, 김순복, 이남선 레지나, 명정진 안나, 선상명 스테파노, 이관호 돈보스코, 이서영 세라피나, 이기쁨 아브라함, 조명순 미카엘라, 손의주 안젤라, 은슬기 아넬로, 하경혜 베로니카, 임남미 요한나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3명 189중 주일미사 명 참례 / 참례율 : 26.51%

평일미사	토 (9/12)	월 (9/14)	화 (9/15) 내촌 / 본당	수 (9/16) 본당 / 송정	목 (9/17) 송정 / 본당	금 (9/18) 본당 / 역내
	30명	65명	14명 / 25명	22명 / 11명	10명 / 22명	13명 / 13명
주일미사 (9/13)	토요일 저녁	교중미사				
	24명	165명				



2026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

살아 있는 물

5. 위기와 희망 사이의 물

5.1. 오늘날의 물 위기

에제키엘의 환시는 우리가 겪고 물 위기 현실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국제 연합(UN) 뉴스에 따르면, 가정에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부족한 인구가 17억 명에 달합니다. 또한 21억 명은 여전히 안전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는 세계 인구 4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지하수의 취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나라가 현재 이른바 ‘물 파산’ (UNU)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자연 수자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되었음을 뜻합니다. 식수 접근권은 모두의 인권이지만, 복합적 물 위기는 정치, 경제 구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취약 공동체와 미래 세대, 그리고 다른 피조물의 생명에 더 크게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많은 과제 가운데 몇 가지를 안내합니다.

- 가난한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 가격
- 수인성 질병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 화학물질과 기타 오염물질의 산업 방류가 강에 미치는 피해
- 인공 지능 활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생산 시 발생하는 물 소비 급증
- 기업과 정부의 부실 관리와 부패
- 가뭄, 홍수, 폭풍, 사막화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피해
- 해수면 상승이나 대수층(지하수 함유층)의 과잉 개발로 인한 토양 염류화
- 부족한 물 공급을 둘러싼 경쟁으로 발생하는 폭력

이런 다수의 문제가 사람들을 이주하게 만들고, 난민으로 내몰며, 고향과 문화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타격은 참혹합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우리는 수중 야생 생물이 재앙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담수 개체군은 무려 85%, 해양 개체군은 56%나 감소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위기는 세 가지 관계가 깨어졌음을 드러냅니다. 곧 인류와 하느님 사이의 관계, 인류 가족 내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다른 생명체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수질 오염이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2. 신앙과 실천이 불러오는 희망

에제키엘의 환시는 궁극적으로 희망의 환시입니다. 창조주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는 창조세계를 ‘상호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참조: 창세 9,8-17; 호세 2,18; 시편 24[23],1). 이 관계는 지배가 아니라, 거룩한 동반자이자 상호 돌봄의 관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과도하거나 포악한 인간 중심주의를 거부하시며, 이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 책임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찬미받으소서, 67.68.116항).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언급했던 불의에 맞서고, 물을 소모성 자원으로 취급하는 세계관을 거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교회협의회(WCC) 에큐메니컬 물 네트워크(EWN)는 물이 하느님의 선물이며 식수 확보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접근을 바탕으로, 지난 20년 동안 모든 이를 위한 물의 보존과 책임 있는 관리, 공정한 분배를 촉진해 왔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신앙에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을 회복시키고, 수원지를 오염과 자원 채굴 산업으로부터 보호하며, 메마른 땅이 다시 푸르게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또 우물을 파서 본당과 마을, 보건 시설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4주일

주일 헌금	1,312,300	주일헌금(송정)		교무금	950,000
양성, 복지, 원로	50,000	미래 기금	40,000	감사헌금	700,000

교무금 이종석, 이성희, 조영재, 안남선, 전지선, 이원석, 최삼순, 정구호, 김승옥, 이향숙, 이기영, 김명숙, 김주하, 박영미, 이천희, 이하나, 강호석

감사헌금 신남성당 300,000 춘천교구평협 200,000 강미자(글라라) 100,000 이경옥(마리아) 1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9월 18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226,000	10,608,000
		약정 기부	2,600,000	155,570,000
		2차 헌금		9,979,950
		기타 수입	7,877,000	25,382,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1,650,000	152,837,326
		매일미사	4,985,120	83,230,120
		평화방송	10,760,000	119,382,209
		가톨릭 평화 신문	2,090,000	15,875,000
		가톨릭 신문	6,567,000	48,715,000
		기타 후원		21,539,000
	합 계		36,755,120	643,119,068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7,560,000
	모금 홍보	광고비		52,351,200
		모금 준비비	720,000	6,833,250
		봉사자 지원비		1,440,850
	합 계		720,000	104,226,870
현 잔액			1,205,740,114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3세대 187,300,000원 중 155,570,000원 납부 (납부율 82.53%)

이경옥, 김석기, 장혜분, 최윤정, 김준희

타본당 모금

스무쥬성당 250,000원 김기숙, 최혜정, 라기춘, 김호중, 박성선, 최형규

죽림동성당 510,000원 김기옥, 오은진, 조남수, 김범한, 박양옥, 박부용, 박옥자, 유승희

교동성당 890,000원 김귀자, 조영혜, 이미경, 구희송, 이순정, 장지혜, 손세은, 최효섭, 홍성우, 신미선

매일미사 양순화, 정구옥, 정구연, 이성인, 오요한, 권종원, 정영수, 허윤경, 오주영, 정숙자, 최희정, 서선례, 신현범, 최미영, 권영애, 박미경, 이용미

평화방송 이은민, 정경원, 김경미, 이경순, 문수정, 이순자, 김상우, 이해경, 박덕순, 남주연, 현미숙, 탁영숙, 신경숙, 엄희섭, 이정석, 이영희, 유혜명, 이진자, 이한명, 안종웅, 홍진의, 이택영, 정민섭, 이정숙, 명현식, 한익자, 김정옥, 이길춘, 윤경옥, 김복열, 유수연, 김군자, 장미희, 유경희, 송영숙, 김순이, 김옥임, 박인순, 왕영순, 신성희, 최정숙, 김소라, 주영숙, 손종석, 서정완, 홍군자, 최순희, 김상기, 한선종, 김의태, 이춘례, 오유환, 이영숙, 이승우, 박세원, 남수림, 남예림

가톨릭신문 박경옥, 대건안드레아, 박두선, 김기락, 안을영, 강정남, 박규용, 황인선, 최순덕, 이경순, 김태민, 김이재, 함동욱, 송숙영, 문덕철, 이덕효, 김철옥, 김정숙, 마재심, 황인선, 윤영찬, 백 마리아, 윤재균, 박선자, 정옥희, 목향국, 김장옥, 김영창

가톨릭 평화 신문 나성미, 이명옥, 김형주, 노혜진, 홍정희, 정아현, 익명, 조제순, 전진배, 최요섭, 김미아, 이시은, 김원임

지출

모금 준비비 대나무 칫솔 720,000

레지오 훈화 2-2.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2)

성모 마리아께서는 무엇보다 신앙의 여인이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신학자들은 이 신앙 고백이 담긴 ‘예수님의 탄생 예고’(루카 1,26-38)를 마리아를 위한 황금 자료로 간주한다. 교부들은 이 신앙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와의 불순종이 극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를 ‘새 하와’로 일컫기까지 하였다. 이 신앙의 응답은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열정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피조물 인간의 전형적 모범이 되게 한다. 사실 마리아의 모든 특은은 이 신앙의 응답에서 시작한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특권의 호칭 또한 이 신앙의 응답에서 유래한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믿고 따르셨던 첫 번째 사람이시다. 이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잘 드러난다. 카나에서의 기적은 전적으로 마리아의 믿음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잔치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 기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신학자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하고 지시하신 성모님의 말씀을, 시나이산의 계약에서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탈출 19,8; 24,3.7)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과 비교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기적의 협력자 이상으로 세상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고백해야 할 신앙을 앞서 고백하는 역할에 비유하기도 한다.

성경은 엘리사벳 성녀를 통하여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께서 단지 당신을 육체적으로 낳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이심을 명확히 선언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48-50). 이와 같은 선언으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께서는 어머니가 되신다(요한 19,27 참조).